(10) 송익필의 후대 평가

강민우: 이이와 성혼 사이에는 '사단칠정논변' 이외에도 크고 작은 학술적 논변이 많았다죠.

송익필: 그렇습니다. 이이는 학술상의 교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주로 성혼이 질문을 하고 또 비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혼의 송곳 같은 비판과 질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에 알려지기는 온순하고 공손한 성혼이 이이의 주장에 대체로 따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혼은 이이 이상으로 자신의 견해와 소신이 뚜렷합니다.

강민우: 먼저 '사단칠정논변'과 관련하여 두 사람의 논변 태도는 어떠했나요.

송익필: 1572년(선조 5년)에 시작된 이이와 성혼 사이의 '사단칠정논변'은 사실상 그 이전에 있었던 이황과 기대승 간의 '사단칠정논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황과 기대승 간의 '사단칠정논변'에서의 남은 쟁점들이 더욱 부각되고, 따라서 논변이 깊이를 더했음은 물론입니다. 성혼과 이이가 대등한 위치에서 논변을 전개한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성혼이 이이에게 질문을 하거나 가르침을 청하는 형식입니다. 겸손하고 공손한 그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에 비해 이이는 성혼에게 스승이나 선배가 제자 또는 후배를 가르치듯 장황하게 자기의 이론을 전개합니다.

강민우: 전반적으로 성혼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이이는 '자기가 옳고 성혼이 그르다'라는 식으로 공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익필: 이이는 성혼을 대화나 논변의 한 축으로 여겼다기보다는, 이이의 설을 성혼에게 설파하여 따르기를 강요한 인상이 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겸손하기 짝이 없는 성혼으로서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말을 너무 업신여긴 듯하다"라는 성혼의 지적을 받고, 이이가 깊이 사과한 적도 이 때문입니다.(『율곡전서』 권10) 성혼의 설을 재음미하고 이것을 자신의 성리설에 수용한 김창협 같은 이조차도 "이이가 끝내 성혼이 의심하는 것을 풀어주지 못했다"(『농암별집』 권3)라고 하여, 논변이 시종 이이 위주로 전개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강민우: 이쯤 되면 다른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송익필: 매사를 겸양으로 일관하던 성혼의 학문 태도, 그리고 사단과 칠정의 이기론적 해석과 같은 사변적인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성혼의 생각을 살피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대화 형식만 보고 대등한 논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혼은 마침내 이이의 설을 일부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자기식의 새로운 사유 체계를 수립합니다.

강민우: 그래서 성혼의 설은 이이의 설과 함께 조선 후기 성리학계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친 것이군요.

송익필: 이이의 설은 대체로 기대승의 설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성혼의 설은 이이의 설을

인정하면서도 이황이 말한 주리·주기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이 둘을 절충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혼의 이기일발설(理氣一發說)은 후일 이황과 이이의 어느 한 쪽 편을 든 것으로 해석되어 퇴계학파나 율곡학파 후학들에게 다 같이 불만의 표적이 됩니다. 퇴계학파는 호발이 아닌 '일발(一發)'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율곡학파에서는 최대 금기어인 '이발'을 인정했다는 데서 만족할 수 없다는 합니다.

강민우: 학문적 성향으로만 본다면, 이이와 성혼의 후학들은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 놓였다고 할 수 있겠군요.

송익필: 이이의 경우 자신의 후학들이 집권하여 학파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나, 정작 그 원조인 이이의 사상으로부터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이는 『중용』·『통서(通書)』에서 성(誠)을 철학사상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성'은 이이의 전 사상 체계를 일관하는 핵심입니다. 그의 '성' 사상은 '경'을 주로 하는 이황과 성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찍이 이이의 제자 김장생은 스승이 실천에서 지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박문(博文)·약례(約禮) 두 가지는 유학의 학문에서 수레의 두 바퀴나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이는 늘 이 점을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내가 보건대, 이이는 '박문'에는 공이 많지만 '약례'에는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사계유고』 권10)

강민우: 이이의 후학들 사이에서도 약례(또는 함양) 공부가 이이 학문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군요.

송익필: 성혼은 이이의 그늘에 가려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지만, 도리어 학문적으로는 그 후학들에 의해 그 사상과 학파적 전통이 비교적 잘 계승됩니다. 이이가 체계화했던 무실(務實: 실속에 힘씀) 학풍 역시 그 직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성혼계열의 윤선거·윤증 부자에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 또 이이 직계가 조선 후기의 정계와 사상계를 경직되게 운영한 데 비해, 성혼 학통을 이은 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병자호란의 대응 문제를 두고 싸우자는 척화(斥和)와 평화를 유지하자는 주화(主和)의 사이에서, 최명길의 주화론은 일찍이 성혼이 조정에 주청했던 대왜강화론(對倭講和論)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강민우: 최명길은 성혼의 '강화론'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지요.

송익필: 김장생은 자타가 인정하는 이이의 직전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박문'에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문을 바탕으로 '약례'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박문 쪽에 비중이 있는 이이와의 학문적 차별성을 넌지시 드러내기도 합니다. 김장생은 박문보다 약례를 중시한 성혼의 학문체계를 이어받아 그것을 실천적으로 구체화하는 예학으로 끌어올립니다. 더욱이 저의 철학사상의 바탕을 이루는 직(直) 사상은 김장생·송시열에게로 계승되어 그들의 사상적 핵심을 이룹니다. 저의 사상적 결정체는 '직' 사상입니다. 이 '직' 사상은 김장생에게 계승되는데, 송시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김장생의 학문은 오로지 '직'이라는 한 글자로서 마음의 요법을 삼는데, 이것은 주자가 세상을 떠날 때 문인에게 준 처방이다." (『송자대전』 권131) 송시열은 김장생에 의해 계발되고 주자 임종 시 유언에서 강조했던 '직'을 유학의 핵심 사상으로 그 사상체계를 수립합니다.

강민우: 이렇게 볼 때, 기호학파의 사상적 맥락은 선생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요. 선생님의 학문적 영향이 지대함에도 김장생·송시열 등은 자신들의 학통을 정치적·학문적으로 명망이 높았던 이이에게만 연결한 것이네요. 이것은 무엇보다 선생님의 신분이 미천한 데다 아버지 송사련의 허물이 너무 컸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기호학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결코 지나쳐 볼 수 없겠군요.

송익필: 저를 그렇게까지 평가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불우한 역경에서도 학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여 조선 유학의 대학자로 성장합니다. 특히 선생님은 예학에 밝아 이이·성혼도 선생님의 학문적 경지를 높이 평가하고, 「태극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성리학에 있어서도 심오한 경지를 개척합니다. 특히 예학에 능통하여 당대 이 분야의 권위자로서 학계의 정평이 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선생님의 문하에서 '동방 예학의 종장'으로 일컬어지는 김장생이 배출됩니다. 이어서 김집·송준길·송시열·이유태(李惟泰) 등 기호 예학을 배출함으로써 조선조 예학의 선구적 위상을 평가받기에 이릅니다.

송익필: 예학에 관한 저술로는 조선 최초로 관례·혼례·상례·제례의 네 가지 예를 모두 갖춘 『가례주설(家禮註說)』과 예에 대해 묻고 대답한 「예문답(禮問答)」이 있습니다. 또한 저의 아들 취대를 통해 저와 이이·성혼 세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의 일부를 모아 『삼현수간』을 편찬하기도 했지요.

강민우: 또한 공자와 맹자를 거쳐 주자에게 계승된 '직' 사상은 마침내 선생님에 의해 크게 드러나서 김장생에게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송시열에게 전승되어 송시열 의리 사상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죠.

송익필: '직'은 의리의 원천으로 예(禮)를 통해 현실사회에 구체화됩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을 철학적으로 밝히는 학문이며, 이를 통해 본성에 맞는 삶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인간 본성의 근원을 천(天)에서 찾고, 그 '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와 천이 하나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성리는 반드시 밖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리는 예를 통해 구현되고, 예를 통해 온전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민우: '예'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당위의 원리이며 선의 덕목을 의미한다는 말씀이군요.

송익필: 그래서 주자는 예의 본질을 '천리의 절문(節文)이요 인사의 의칙(儀則)이다'고 말합니다. 이는 천지에 내재하는 절대불변의 법칙이 인간의 예를 통해 실현되고, 예는 인간사의 의칙이 되어 천리와 인간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리는 예의 근거가 되고 예는 성리의 실천적 방법이 됩니다.

강민우: 많은 시간 동안 부족한 저에게 이토록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큰절 올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송익필: 저도 학생과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참고문헌>

김창경, 『구봉 송익필의 도학사상』, 책미래, 2014.
배상현, 「구봉 송익필의 생애와 시문학」, 『애산학보』5, 애산학회, 1987.
최영성, 「우계와 구봉 송익필-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우계학보』30, 우계문화재단, 2011.
김창경, 「고청 서기와 구봉 송익필 선비정신의 본질과 현대적 의의」, 『동서철학연구』80, 한국동서철학회, 2016.
황의동, 「기호유학의 산실 坡州와 三賢」, 『우계학보』36, 우계문화재단, 2019.